

주목받지 못한 물건들로 만든 인간적 가치 양혜규,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개인전

김정선 기자

2014-10-30 15:22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블라인드, 방울, 조롱박, 머리끈, 밧줄, 조화, 전선, 휴대전화 고리 그리고 짚.... 2009년 베네치아 비엔날레 한국관과 본 전시에 참여하고 해외에서 꾸준히 활동하면서 주목받은 설치작가 양혜규가 현재까지 작품에 쓴 재료다. 보기에 따라서는 초라하다거나 주목받지 못하는 물건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양혜규 작가 <삼성미술관 리움 사진제공>

작가는 지난해 미술전문 분석지 아트팩트넷이 선정한 세계 300 위 이내 작가에 고(故) 백남준 작가, 김수자 작가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이 작가의 2001 년 이후 대표작과 신작 등 35 점을 보여주는 전시가 12 일부터 5 월 10 일까지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열린다. 국내에서 5 년만에 마련되는 이번 개인전의 제목은 '코끼리를 쏘다 象 코끼리를 생각하다' (Shooting the Elephant 象 Thinking the Elephant)이다. 전시공간에선 보이지 않는 코끼리는 작가가 중요하게 여기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 회복에 대한 사유와 상상의 은유적 매개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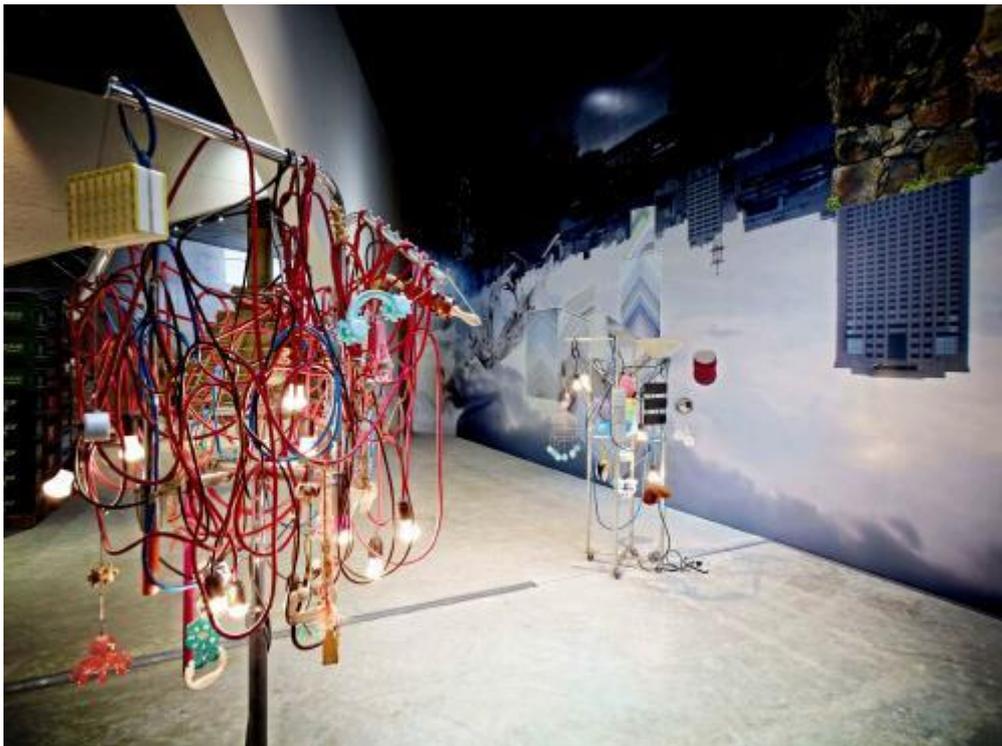
중간 유형(외발 사자춤_보로부두루에 부처) <삼성미술관 리움 사진제공>

작가에게 영감을 줬다는 조지 오웰의 수필 '코끼리를 쏘다'(Shooting an Elephant)와 로맹 가리의 소설 '하늘의 뿌리'(The Root of Heaven)에는 공통으로 코끼리가 등장하는데, 인간에 의해 파괴되는 자연이자 연약한 인간의 존엄성을 의미한다고 미술관 측은 설명했다. 전시공간에는 인조 짚을 엮어 만든 큰 구조물이 신전처럼 설치돼 있다. 그 뒤에 있는 두 개 기둥은 짚으로 둘러쌓였다. 작가의 신작 '중간 유형'의 일부 모습이다.

양혜규는 지난해 2 월 일본 가나자와의 어느 공원에서 짚으로 감싼 큰 나무들이 선 모습을 보고, 농경사회의 소재인 짚과 이것을 하나하나 엮어내는 사람들의 손놀림을 연결해 같은 소재지만 문명에 따라 다른 보편성과 상이성에 주목했다고 한다. '중간 유형'은 고대 마야의 피라미드, 인도네시아의 불교 유적 보로부두르, 러시아의 현대 이슬람사원 라라툴판을 구체적으로

참조한 작품과 그 사이에 상상의 존재를 형상화한 작품 등으로 구성된다. 그 형상에는 족두리, 조롱박, 방울 등이 달려 친근감을 준다.

전시장 한쪽에는 여러 분야 인사에게서 사무실이나 집에서 사용하던 탁자와 의자를 빌려 배치한 'VIP 학생회'라는 제목의 작품이 설치됐다. 관람객이 이곳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공간은 짧은 시간 여러 사람이 임시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서울근성 <삼성미술관 리움 사진 제공>

또 다른 작품 '창고 피스'는 작가의 초기 작품 23 점을 미술품 운송업체가 포장한 상태 그대로 전시장에 쌓아놓은 것이다. 작가는 "외모도 초라하고 볼품도 없지만 저의 초기작을 보려면 이 작품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와 관련해선 "하나의 주제가 아니고 매우 큰 얘기를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더욱 만용이라면 만용일 것이고 용기라면 용기를 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jsk@yna.co.kr